

地域과 博物館¹⁾

- 地理學에서의 地域博物館論의 展開 -

후쿠다 타마미(福田珠己)*

정 광 중 譯**

목 차

- I. 머리말
- II. 日本의 博物館·博物館論
- III. 地域博物館論의 展開
- IV. 理論화된 博物館 -英語圈을 중심으로 한 博物館 研究의 展望-
- V. 새로운 地域博物館論을 指向하여

I. 머리말

196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박물관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또(伊藤壽朗)의 연구에 의하면, 연평균 100개가 넘는 박물관들이 새롭게 개관함으로써 「박물관 붐」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한다²⁾.

1996년 현재, 박물관으로 인정되는 시설수는 4,100개를 넘고 있다. 박물관과 관련되는 변

* 大阪府立大學 綜合科學部

** 제주교육대학 사회과교육과 교수

1) 본고는 1997년 10월 발행된 『人文地理』(日本, 人文地理學會 機關誌, 년 6권 발행) 제49권 제5호(pp.442-464)에 실린 것으로서, 후쿠다 타마미(福田珠己, 大阪府立大學 綜合科學部 所屬)씨의 논문이다. 원제목은 「地域を展示する—地理學における地域博物館論の展開—」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주로 일정지역에 위치하는 지역박물관의 필요성(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地域과 博物館—地理學에서의 地域博物館論의 展開—」로 제목을 다소 수정하였다. 최근 한국내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물관이 단순히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일정지역 내에 위치하는 박물관이 전시기능이나 발굴기능 만을 강조하는 차원을 떠나, 관련되는 모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해 가야 하는지, 또한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박물관의 방문객들을 어떠한 형태로 선도하고 계몽해 가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 관련자나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자 및 기타 일반 대중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미력하나마, 여러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 번역논문을 본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유철인 교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2) 伊藤壽朗, 1990. 「地域博物館の思考」 『歴史評論』 483, 2-4.

화는 단지 그 수가 급증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³⁾. 박물관과 사회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박물관에 요구하는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완성된 지식을 수용하거나 작품을 감상하는 장에서부터 사회의 능동적인 학습·문화활동의 장으로 박물관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역과 지역문화를 활동의 핵심으로 하는 지역박물관의 활동이 특히 활발하며, 이를 대변하는 많은 실천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역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이 증가함에 따라, 근년 지리학 분야에서도 박물관 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⁴⁾. 그러나, 그 대부분은 지리학이 지니는 정형화된 지식을 박물관이라는 현실속에서 어떻게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점에서의 논의였다.

이들 논의는 박물관 운영이나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측면으로 응용될 가능성도 포함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같은 종류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토대로 지역이나 지역문화가 어떻게 취급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재고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박물관회의(ICOM)에 의한 「퀘벡 선언」⁵⁾에서 지역적 술선과 발전을 중시한 새로운 박물관이 제창되고 있는 것처럼, 본고에서는 각국에서의 기술적 측면 이외에 박물관 자체의 존재형태에 대해 내외로부터 활발하게 재검토되고 있는 박물관 연구의 현상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역박물관을 고찰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박물관과 박물관론에 대해 지역박물관을 중심축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그 배경은 박물관이라는 시설이 대개 우리 주위에 다수 존재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어서 박물관 관계자에 의한 실천적인 다양한 논의를 발판으로 일본의 박물관, 특히 지역박물관의 중심과제와 그 문제점을 밝히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개별적 실천들이 축적된 영역을 초월하여 문화적·사회적 상징으로서 박물관을 논하고 있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최근의 박물관 연구에 대한 타자표상과 자기표상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일본의 지역박물관론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뛰어난 다이나믹한 시설을 텍스트로 하여, 연구하는 과정이야말로⁶⁾ 새로운 지역박물관론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3) 日本博物館協會編, 1996. 『全國博物館總覽』(ぎょうせい)에 기재된 박물관수에 의한다. 각종 박물관, 미술관 외에도 동식물원 및 수족관이 포함된다.

4) ① 『地理』, 1984. 29-10(特輯 情報化時代の博物館). ② 『地理』, 1985. 30-11(特輯 地域博物館への期待). ③ 辰己眞知子, 1996. 「博物館の現象と地理學の役割」, 『立命館地理學』, 8, 19-38. ④ 額田雅裕, 1996. 「博物館の現象と地理學の役割」, 『立命館地理學』, 8, 39-49.

5) Mayrand, P. 1985. The new museology proclaimed. *Museum* 37: 200-201. 퀘벡선언의 전문도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잡지 *Museum*은 국제박물관회의(ICOM)의 기관지로서 영어 및 불어 2개 국어로 발행되고 있다.

6) 상세한 것은 4장에서 논하겠지만, 아주 최근의 연구로서 우선 다음의 논집을 들 수 있다. Macdonald, S. & Fyfe, G. eds., 1996. *Teorizing museums: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Blackwell) 236.

II. 日本의 博物館·博物館論

1. 제2차 대전후의 박물관

일본의 박물관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전시하여, 교육적 배려하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양, 조사연구, 레크레이션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이들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⁷⁾이라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목적과 기능 및 공익을 취지로 한 박물관 정신은 유네스코 안에 담겨져 있는 국제박물관회의의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박물관들의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박물관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현재 일본에서 박물관의 종류, 설치주체 및 경영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광의의 박물관에는 자료관, 미술관 뿐만 아니라, 동식물원, 과학관도 포함된다. 이들은 각각 의견과 내용이 서로 다른 것들이다. 더욱이 설치주체나 경영형태도 다양하여 박물관법에 의존하지 않는 박물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다. 또한 박물관의 목적이나 이념, 혹은 중심적인 흐름도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박물관의 정의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최근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시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미, 오오보리(大堀 등)⁸⁾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의 장이나 생애학습시설, 혹은 커뮤니티와 지역부흥운동의 일환으로서 박물관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한편, 흥미있는 테마 박물관과 환경, 에너지 및 생명이라는 종래의 박물관의 틀을 넘어서, 사회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대적인 과제를 기초로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 변화하는 박물관이야 말로 근년 일본내 박물관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박물관 연혁사⁹⁾ 속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상황변화는 아주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박물관의 수가 급증하거나 박물관과 연관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결과, 사회와 박물관과의 관계가 긴밀해졌음을 의미하는

7) 박물관법 제1장 제2조. 그리고 박물관법은 1951년에 시행되었다.

8) 大堀 哲·小林達雄·端 信行·諸岡博熊 編, 1996. 『ミュージアム・マネージメント—博物館運營の方法と實踐—』(東京: 東京出版) 3-11.

9) 본고에서 일본 박물관사의 전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는다. 박물관사에 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문헌을 제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椎名仙卓, 1988. 『日本博物館發達史』(雄山閣) 366.

것만은 아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정종류의 박물관, 즉 공립 박물관이나 향토에 관한 박물관의 증가가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지방의 시대, 또는 행정의 문화화라는 의식을 표방해온 시기적 현상으로서도 대변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보전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동의 산물로서 많은 박물관이 탄생된 것이다. 1954년에 문화재보호 개정법에 따라 민속자료라는 카테고리가 탄생하였고¹⁰⁾, 메이지(明治) 100년인 1968년을 중심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 수준의 기념비적 사업이 추진된 점, 1970년 문화청(文化廳)에 의한 역사민속자료관에 국고보조가 개시된 점, 1976년부터 문화성(文化省)이 착수하기 시작한 「고향부흥운동 : 후르사또 運動」¹¹⁾, 그리고 1988년 다케시따(竹下) 내각에 의한 「고향창생론 : 후르사또 創生論」 등 박물관 주변을 둘러싼 여러 상황은 상당히 분주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은 박물관이 언제나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일정한 시기마다 정치권력과의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박물관은 더 이상 연구기관이나 혹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고정화된 위치에서만 안주하는 시설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수준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계획하고 사회의 변화를 토대로, 현대의 박물관을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관한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 가지만, 여기에서 거론하는 문제는 결코 지역박물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의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본고에서의 논의는 정도차는 있을지언정 모든 종류의 박물관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2. 박물관론의 전개

박물관의 급증과 궤도를 같이하여 박물관에 관한 논의도 한창 무르익기에 이르렀다. 1929년에 발족한 일본박물관협회의 기관지인 『박물관연구』나 『박물관학잡지』 등 박물관학 전문지 뿐만 아니라, 『역사평론』, 『역사수첩』, 『지방사연구』, 『일본민속학』, 『民具먼스리』에서도 계속적으로 박물관에 관한 논고나 보고가 게재되고 있다. 나아가 지리학에 있어서는 『地理』잡지에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두 번이나 특집으로 다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立命館地理學』에서 최근의 박물관 동향에 대한 논고와 발표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잡지나 논문 등으로부터 박물관의 급증기 이후 박물관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주로 지역과 관련된 점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박물관 붐이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지역문화의 보존기관으로서 박물관

10) 민속자료와 민속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들 수 있다. 才津裕美子, 1996. 「民俗文化財」創出のディスクール, 『待兼山論叢』 30, 47-62.

11) 고향 부흥론과 고향창생사업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많다. 야스이(安井)의 연구에서는 고향(후루사또) 연구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安井眞奈美, 1997. 「ふるさと」研究の分析視覚, 『日本民俗學』 209, 66-88.

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논고가 눈에 띈다. 예를 들면, 『日本民俗學』 106호(1976년)의 박물관 특집은 바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대되는 박물관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오후지(大藤時彦)¹²⁾의 견해를 필두로 잊혀져가는 것들을 보존·전시하는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을 막연하나마 환영한다는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그 전제로서 하야시(林 道明)¹³⁾나 타나카(田中忠三郎)¹⁴⁾는 민속자료가 처해있는 현재의 위치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하야시는 「민구나 민속자료는 만들어진 장소, 또는 사용되었던 향토 및 일정지역에 항시 존재했던 것」이어야 한다는 현지 보존주의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이들 민속자료가 행정측의 낮은 평가로 만족해야만 하는 점이나 상품화¹⁵⁾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타나카는 쓰가르(津輕) 지방의 기모노가 디자인만을 강조하여 전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활사 전체속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수집과정의 의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과 생활사를 반영하는 민구가 역동성을 지닌다고 하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속에는 지역의 순수한 문화가 과거라는 시간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가령 민구들은 외부영향에 의해 상품화되거나 혹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오오따(太田好信)¹⁶⁾의 표현을 빌리자면, 엔트로픽한 말투의 논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두사람의 논의는 박물관 자체를 논한다기 보다는 박물관에 보존해야 할 자료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¹⁷⁾.

이상과 같이 보존되어야 할 자료를 둘러싼 논의와는 별도로, 박물관의 존재형태에 중점을 둔 논고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박물관 운영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학예원에 관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논의는 간혹 학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¹⁸⁾, 처우 개선을 둘러싼 논의로 외소화되어 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에무라(上村喜久子)¹⁹⁾가 공립 역사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박물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의 관계속에서 학예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박물관의 존재형태와 깊게 관련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

12) 大藤時彦, 1976. 「民俗學博物館に對する希望」 『日本民俗學』 106, 1-6.

13) 林 道明, 1976. 「民俗博物館の役割・意義・問題點」 『日本民俗學』 106, 7-13.

14) 田中忠三郎, 1976. 「切り取られた衣服からの提言」 『日本民俗學』 106, 25-31.

15) 여기에서 비판되고 있는 현상과 표리일체한 것으로서 민예운동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金谷美和, 1996 「文化の消費—日本民藝運動の展示をめぐる—」 『人文學報』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77, 63-97.

16) 太田好信, 1993. 「文化の客體化—觀光をとおした文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創造—」 『民族學研究』 57, 387.

17) 才津裕美子, 1996. 「앞글」 (주 10)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은 물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연혁과 함께 검토해야만 할 과제이기도 하다.

18) 일본학술회의 문화인류학·민속학연구연락위원회 및 고고학연구 연락위원회 주최의 심포지움 「‘地域博物館’의 現在」(1995年 9月 29日開催)에 있어서 거론된 것 이외에도 『日本民俗學』 208號 「小特集 シンポジウム 「博物館の現代的課題と展望」」에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소특집은 1996년 4월 14일에 지방사연구협회·일본민속학회 공동 심포지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9) 上村喜久子, 1987. 「博物館労働者「學藝員」の現状と問題」 『歴史評論』 451, 21-31.

러나 우에무라의 논의는 박물관의 기능이나 전문성을 지닌 연구자로서 평가되는 학예원의 모습을 전제로 수용했을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박물관이라고 하는 기관, 혹은 연구자나 학문분야를 문화적·사회적 구성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히비노(日比野光敏)²⁰⁾는 박물관이 지니는 「展示」라는 표현수단을 학예원 특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속분야의 전시·연구의 존재형태에 대해 실천을 토대로 제언하고 있다. 즉, 지방 수집가의 수집물을 박물관이 일괄하여 구입하였을 때, 미술부문과 민속부문 사이에서 생기는 자료의 구분이라는 현실에서 어떠한 물건이 자료로서 분류되고 인식되는 과정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람회를 보는 방문객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제언, 다시 말하면 「민속분야의 전람회는 중전의 역사·고고·미술부문의 전람회와 같은 입장에는 있지 않다」라든지 「왜 이 물건(자료)이 바로 여기에 진열되어야만 하는지」를 이해시키거나, 이 자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인식시킨다든지 등의 단계에서 시작해야만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나 의미가 문제시되는 현장으로서의 박물관의 현실을 주시하고, 학예원의 존재이유에 접근한 히비노의 견해는 지역표현과 박물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수렴해야만 할 것이다.

박물관에 표현된 가치나 의미를 둘러싼 문제는 최근 역사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의 장치로서 박물관을 생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후 50년을 맞은 1995년에는 각지역에서 전쟁을 소재로 한 전시가 많이 개최됨으로써, 이 해를 중심으로 전쟁을 어떻게 취급하여 표현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관점으로 삼으며, 박물관의 표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시도되었다²¹⁾. 이러한 점은 원폭 기념관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이,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역사관이 엄중히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전시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는 단지 전쟁소재의 전시에만 국한되어 전개되어 온 것은 아니다. 국립 역사 민속박물관에서 근대전시를 둘러싼 역사표현의 재검토를 필두로, 차별부락의 표현 등 국내 마이놀리티의 전시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²²⁾. 역사의 서광과 그

20) 日比野光敏, 1994. 「博物館, 展覽會, 學藝員そして民俗學」 『日本民俗學』 200, 248-265.

21) 예를 들면, ① 井口和起, 1994. 「現代史研究と展示」 『歴史評論』 526, 38-47. ② Zolberg, V. L. Museum as contested sites of remembrance: the Enola Gay affair (Macdonald, S. & Fyfe, G. eds., 1996. *Theorizing museum: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 (Blackwell)) 69-82. 한편, 미국의 스미스소니언에서 원폭 관련 전시 혹은 에노라·게이 관련 전시가 빛을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의 사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스미스소니언의 전시를 둘러싼 문제로 박물관의 존재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서는 다음의 문헌을 들 수 있다. ③ マーティン・ハーウィット(山岡清二監譯, 渡會和子・原純夫譯), 1997. 『拒絶された原爆展—歴史の中の「エノラ・ゲイ」』 (みすず書房) 599+9. 그리고 전시계획에 직접 관여하고 사건 와중에 사직한 전 항공 우주 박물관장의 기록은 박물관 전시의 정치성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예를 들면, ① 高橋 敏, 1993. 「歴史に正當な眼を向けて—歴博近現代展示「文明開化」を終えて—」 『季刊リバイ』 4, 4-9. ② 新正勝紘, 1994. 「近代史研究と博物館展示」 『歴史評論』 526, 28-47. ③ 井上 孝・小林 淳一・長谷川賢二・宮前千雅子・小島伸豊, 1997. 「博物館展示と人權」 『部落解放』 416, 28-47 등이 있다.

립자를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 것인지는 박물관이 단순히 회피해서는 안될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역사분야의 전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토야마(富山) 현립 근대 미술관에서 「天皇」에 대한 표현방법이 폭넓게 논의된 것처럼²³⁾, 박물관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성은 모든 종류의 박물관에도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Ⅲ. 地域博物館論의 展開

1. 이또(伊藤壽朗)의 「지역박물관론」

앞에서 개관했던 박물관론과 병행하여 지역박물관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 근거를 이루는 것이 박물관학자 이또(伊藤壽朗)의 지역박물관론²⁴⁾이다. 이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박물관의 형태로서 지역지향형 박물관, 다시 말해 지역박물관을 주장한 것이다.

이또의 지역박물관론은 요구되는 박물관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제시된 것이 박물관에 관한 독자적인 세대론이다. 세대간의 차이를 대비시키고 활동내용의 질적변화를 시계열화함으로써, 새로운 박물관의 방향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또는 박물관을 활동내용에 따라 3개의 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제 1세대는 희소가치를 지닌 보물에 대한 보존을 운영의 축으로 하는 박물관이다. 보물이라는 자체적 가치를 지닌 것을 전시하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에 접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다. 제 1세대의 박물관의 경우, 방문객과 박물관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바로 진열된 물건 자체가 지니는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은 근대적인 박물관의 성립시기부터 나타난 고전적인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제 2세대의 박물관에서는 자료의 공개가 시행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시민들의 요청에 호응하는 형태로 진전되어 오다가 전환된 것이다. 전시실을 통한 박물관 이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개는 사람들의 일과성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간혹 박물관측의 개몽적인 정보제공에 그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제 2세대의 박물관을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제 3세대 박물관의 존재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수동적인 일과성 이용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계속적인 이용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된다. 실제로, 제 3세대 박물관의 조건을 갖춘 시설은 거의 없지만, 각종 교육사업을 통하여 참가 및 체험이라는 새로운 이용형태가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23) 君塚仁彦, 1994. 「博物館展示と「表現の自由」「見ることの自由」」『歴史評論』526, 48-56.

24) 伊藤壽朗, 1990. 「앞글」(주 2) 및 伊藤壽朗, 1993. 『市民のなかの博物館』(吉川弘文館), 190.

이또는 이러한 제 3세대의 박물관이야말로 여러 박물관들이 지향해야 할 자화상이라고 하고, 「생활의 장인 지역을 다시 보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과제의 발견을 기대한다」 25)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박물관은 단순히 완성된 지(知)의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박물관의 활동은 항상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떠맡고 있는가라는 가치의 내실이 조명되어 비판된다」 26)는 것이다. 이처럼 일정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딪히는 여러 과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삼는 박물관을 이또는 「지역박물관」이라는 견해로 제시한 것이다. 지역박물관은 단지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어떤 행정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삼는 정도의 위치로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 보다는 오히려 지역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살아있는 생활자로 보며, 동시에 시민자치의 원칙을 고려한 고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지역박물관에서는 전문영역의 연구속에서 사상(捨象)된 경향이 있는 속성, 즉 규정성과 매개성이라는 상호의 관계성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영역이란 과거로부터 특정 박물관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학문분야를 가리킨다.

지역과제를 축으로 한 지역박물관의 원래 모습은 시계열적인 파악에서만 규명되어 온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목적이나 지향성이라는 다른 좌표축에서도 해명되어 왔다. 이또는 「박물관의 목적은 하나라고 하는 소박한 일체감은 이미 없어졌다」 27)는 취지에서 지역지향형 박물관을 주장한 것이지만, 그것은 다른 목적이나 지향성을 지닌 박물관, 즉 중앙지향형이나 관광지향형 박물관의 비판도 포함되는 새로운 박물관관의 제언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지향형에서는 지역과제가 필터의 역할을 한다. 자료간의 관계를 생활의 장인 지역에서 결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종합성을 찾아내는 일이 목표인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결론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과제에 피드 백 시킬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이런 종류의 박물관에서는 지역내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적 내용이 지향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지향형에서는 범칙성이 필터역할을 한다. 자료간 또는 자료와 인간사이의 일반성과 공통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그것들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박물관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체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전될 수도 있다. 물론, 중앙지향형에서도 지역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의 논리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지역은 실험실이나 자료제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성과가 지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성과의 총체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지역생활

25) 伊藤壽朗, 1990. 「앞글」(주 2) 6.

26) 伊藤壽朗, 1990. 「앞글」(주 2) 7.

27) 伊藤壽朗, 1990. 「앞글」(주 2) 8.

에 피드 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박물관의 활동도 한 방향의 지식전달과 교수를 지향하게 된다.

관광지향형에서는 사물의 희소성이 필터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쉬운 사물이나 사상(事象)의 특수성이나 의외성에 가치가 놓여진다. 실제 입관자의 의식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한 박물관에 관한 정보는 관광지향형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나 시민으로부터 일체 피드 백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시민자치나 사회교육이라는 시점에서 논하는 이또의 박물관론 속에서 이런 종류의 박물관에 대한 평가는 극히 낮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세형태의 박물관은 전혀 다른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물관 속에 얽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성질을 애매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료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없는 현상을 초래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상은 이또의 지역박물관론에 대한 전체적인 요지이다. 이 박물관론의 밑바탕에는 생활 무대이며 주어진 환경으로서 눈앞에 존재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접근이 항상 교육적 배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의 박물관이 본연의 모습을 갈망한 이또의 지역박물관론의 특징인 동시에, 본고에 있어서도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2. 지역박물관의 실천 사례

이또의 지역박물관론은 많은 지역박물관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의 지역박물관의 존재를 생각해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 절에서는 이또의 지역박물관론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그 실천에 바탕을 둔 논의의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역박물관의 실천속에서 간혹 논의되어 온 것 중의 하나는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1970년대 역사학에서 「지역사」라는 용어가 제창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박물관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역사학 내부의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²⁸⁾.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주민을 둘러싼 역사적 양상에 대해 주민의 시각을 기초에 두고 정점 관측적으로 추구하고 기술하는 방법이 지향되어 온 것이다.

오랫동안 역사계통의 박물관 운영에 관계해 온 무라카미(村上義彦)²⁹⁾는 그의 경험에서 종래의 통사전시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모색하였다. 무라카미는 지역박물관을 행

28) 지방사 연구와 박물관 전시에 관한 논고로서는 長谷川賢二, 1997. 「地方史展示の課題」 『史窓』 27, 179-194가 있다.

29) ① 村上義彦, 1992. 『博物館の歴史展示の實際』 (雄山閣) 204. ② 村上義彦, 1995. 『新しい地域博物館活動』 (雄山閣) 154.

정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지역에 설치된 시설로 취급하고, 거기에서의 역사전시의 모습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 이 논의의 전제에서, 행정단위로 설치된 박물관에 있어서는 전시의 스토리에 특징짓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즉, 통사전시에서는 대동소이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라카미는 역사의 재현이나 개별적 편년 전시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통사전시의 개선을 제안하고 동시에 전시 뿐만 아니라, 보급교육 등 폭넓은 지역박물관의 활동에도 언급하고 있다. 역사전시의 방법에 중점을 둔 박물관론이기 때문에 지역박물관의 정의도 많이 완화된 것이다. 이또의 경우처럼, 지역과제를 필터로 한다는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운영적 측면에서 지역과 밀접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립 박물관이라는 방식이다. 그 때문에, 표현해야 할 영역도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버려 전술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정지역에 밀착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시점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예를 들어, 오오무라(大村和男)³⁰⁾는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한(renewal open) 等呂博物館의 「참가체험 뮤지엄」의 수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를 가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시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의 체험행동을 반영한 표현수법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처럼 날로 개혁되는 전시방법에 대한 검토외에도, 전시를 포함한 박물관의 활동전체의 입장에서 박물관이 차지하는 입장을 재고한 논고도 보여진다. 예를 들면, 타나베(田辺悟)³¹⁾는 요코쓰카시(横須賀市)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박물관이란 지역사회 전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진보 또는 발전을 위한 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를 위해 장소의 제공과 기회의 제공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 타나베와 마찬가지로, 지역박물관을 사람과 물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사회교육과 학교의 향토학습을 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³²⁾.

이들과는 다소 다른 지역박물관의 실천에 대한 것들이지만, 어쨌든 그 어느 쪽의 경우도 운영면에서는 지역에 밀착해 있는, 즉 어떤 특정 행정범위를 서비스 지역으로 삼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박물관을 운영해 가느냐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시점에서 특정지역에 밀착한 역사의 전시를 행할 것인가라는 논의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하타케야마(畠山豊)³³⁾는 지역에 밀착한 시점과 그 보다 더 넓은 시

30) 大村和男, 1990. 「歴史展示の曲り角—「参加体験ミュージアム」という展示手法の試み—」 『民具マンスリー』 28-9, 18-23.

31) 田辺 悟, 1984. 「地域博物館の要件」 『民具マンスリー』 19-5, 1-10.

32) ① 阿由葉司, 1984. 「地域博物館と郷土学習—房総風土記の丘の教育利用—」 『地理』 29-10, 26-33. ② 岩本廣美, 1984. 「学校教育における博物館利用」 『地理』 29-10, 34-42. ③ 佐藤 廣, 1984. 「地域での相互教育活動」 『民具マンスリー』 19-5, 14-19. ④ 小林聖夫, 1990. 「小學校における博物館・郷土資料館の利用」, 『地方史研究』 40-6, 16-30. ⑤ 廣瀬 鎮, 1992. 『地域博物館社會教育論』 (學文社) 226.

점을 서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그는 지역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마(多摩)지구에 있어서 박물관이나 자료관이 공존하는 실태를 근거로 야나기다(柳田國男)식 향토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나기다의 향토연구에 관해서는 지역박물관에 대한 초기의 논의에서 민속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이와이(岩井宏實)³⁴⁾는 민속학·민구학의 입장에서 민구가 지니는 문화권을 지역이라는 하나의 범위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박물관에서는 향토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에서 일본인의 생활과 민족의 일환으로서 과거의 경험을 배운다고 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지역박물관에서의 연구와 전시가 설치자와 연관되어 행정단위로 구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역사를 전시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역적인 시점에만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³⁵⁾. 지역의 문화적·산업적·지형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주의에 빠지는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지역사회에 규정된 여러 가지 테마가 항상 지역적인 틀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인 시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박물관에 관한 실천과 논의는 중심시점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행정단위로 계속 건설된 박물관이 지역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시행착오임에 틀림없다. 서비스 지역이나 전시, 연구대상으로서 세분화된 각지역에 서로 맞서는 가운데, 박물관의 여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지역학」 구축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연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 학제적인 시야를 가진 새로운 학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³⁶⁾. 이 지역학의 실천속에서 지리학의 유효성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³⁷⁾. 그 가운데에도 하마다(浜田弘明)³⁸⁾는 박물관은 지역의 현대적 과제를 생각하는 장으로 취급하여, 박물관 활동에서 지리적인 발상과 센스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33) ① 畠山 豊, 1978. 「地域社會と博物館—町田市立博物館の場合—」 『博物館研究』 13-6, 3-6. ② 畠山 豊, 1984. 「「地域博物館を考える」についての若干の私見」 『民具マンスリー』 19-5, 10-14.

34) 岩井宏實, 1976. 「地方民俗博物館の問題點」 『日本民俗學』 106, 14-42.

35) 齊藤 新, 1990. 「地域博物館の課題」 『地方史研究』 40-6, 31-42.

36) 武士田忠, 1990. 「都市における地域博物館の課題」 『民具マンスリー』 23-4, 16-21.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먼저 에도(江戸) 동경학(東京學)을 명칭으로 하여 설립된 江戸東京博物館을 상기할 수 있다.

37) 앞글(주 4)의 ②와 ③번 외에 橋本直子, 1994. 「博物館と地理學」 『歴史手帖』 22-1, 13-17이 있다.

38) ① 浜田弘明, 1985. 「現代的視點に立った博物館を」 『地理』 30-11, 18-25. ② 浜田弘明, 1993. 「現代の博物館を讀み解く—博物館における「環境」へのアプローチ—」 『相模原市教育委員會博物館建設事務所研究報告』 2, 5-22. ③ 浜田弘明, 1994. 「近代都市の博物館における地理的課題—現代的視點に立った博物館活動に向けて—」 『法政地理』 22, 95-109. ④ 浜田弘明, 1995. 「地理學における「變化」の視點—土地利用と景觀の中から—」 『相模原市教育委員會博物館建設事務所研究報告』 4, 34-52. ⑤ 浜田弘明, 1996. 「博物館における「現代」の地理的表現—展示「地域の變貌」から—」 『相模原市立博物館研究報告』 5, 13-33.

발언하고 있다. 즉, 지역과제가 발생하는 현대에 대해 그 장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현대적 과제를 생각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지역학 혹은 하마다 등이 실천은 이 또의 지역박물관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실천의 배경속에는 지역, 지역문화 및 지역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부여된 조건으로 여기고, 그것들이 가치를 찾아내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이 점에 대한 논의를 다음 절에서 더 진행하기로 하겠다.

3. 지역박물관론의 과제

이또는 「박물관은 대상으로 하는 세계를 어떤 조건속에서 한정시켜 목적을 가지고 재구성한 것」³⁹⁾이라 하고 있다. 지역박물관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세계가 바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이 박물관의 활동을 통해 한정시켜 재구성한 것이다.

앞 절에서 개관한 지역박물관에서의 지역의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전제야 말로 다시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한정된 지역 그리고 한정시켜 재구성한 박물관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지역에 대해서는 사사하라(笹原亮二)⁴⁰⁾가 박물관의 전제조건으로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의 박물관에서 「지역」이란 기본적으로 공적인 제도로서 정해진 영역으로 지역주민을 동반한 활동을 전개하는 일종의 운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사사로운 정서까지도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 항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따라서 지역을 의심하지 않고 박물관 활동의 기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에는 사사하라가 언급한 것처럼, 국가정책으로서 향토 박물관이 장려된 제2차 세계 대전기의 상황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⁴¹⁾. 동시에 앤더슨⁴²⁾의 「상상의 공동체」를 원용하는 것도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하다. 지역이 일방적으로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지거나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

39) 伊藤壽朗, 1990. 「앞글」(주 2) 10.

40) 笹原亮二, 1992. 「地域の誕生—博物館における地域あるいは郷土—」 『相模原市教育委員會博物館建設事務所研究報告』 1, 4-23.

41) 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포함시킨 일본 박물관의 연구로서는 椎名仙卓, 1988 「앞책」(주 9) 외에도 당시 향토 박물관의 이론적 전개를 리드해 온 다나하시(棚橋源太郎)의 연구결과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향토교육과 박물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서는 新井重三, 1978. 「郷土教育と博物館—郷土博物館の心を求めて—」 『博物館研究』 13-8/9, 21-24가 있다. 앞으로, 향토교육과 향토학의 측면에서도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특정 박물관을 사례로 한 연구로서는 中野渡一耕, 1996. 「翼翼文化運動と「青森縣郷土博物館」」 『青森縣郷土博物館研究年報』 20, 103-114가 있다.

42) 베네딕트·안더슨(白石 隆·白石さや譯), 1997. 「増補 想像の共同體—ナショナリズムの起源と流行—」(NTT出版) 348+10.

체적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이른다⁴³고 하는 것도 지역박물관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자기상(自己像)의 형성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며 또한 요청되는 것으로서⁴³ 그것과 깊게 관여하는 것이 박물관인 것이다. 즉 박물관이라 하는 것을 지역, 자기상, 지역문화가 다양한 관계속에서 의식화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모체로서 거듭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박물관을 재고할 경우에 종래의 지역박물관론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종류의 박물관을 포함하여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박물관을 포괄하는 명확한 용어는 없지만, 지역부흥(마찌오코시, 町おこし)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던 박물관 시설이라 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역의 박물관으로서 널리 인지되고 또한 지역조성(마찌즈크리, 町づくり)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되어⁴⁴ 각종 미디어를 통해 그 존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포가 말하는 지역지향형 박물관과는 틀에 벗어난 취급을 받는 것들이 있다. 이들 박물관은 이포의 분류에 의하면, 사물의 특수성과 의의성을 축으로 한 관광지향형 박물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 주도형이던지 아니면 오락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높다. 지역지향형 박물관 쪽에서 보면, 관광지향형 박물관에서 지역생활과 문화가 상품화된다는 것이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는 공통적이지만, 한정시키는 조건이나 목적이 양자의 박물관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역박물관의 전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을 재고함에 있어서 이포를 비롯한 과거 지역박물관론이 취급해 온 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같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대상으로 하는 세계를 가시화할 박물관 자체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이란 어떤 시설(장치)인가, 그리고 거기에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재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미디어는 문자나 영상 뿐만 아니라, 실물을 동반한 표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실물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은 간혹 전시하는 작가나 그 배경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과는 대치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박물관은 하나의 표현이며, 미디어인 동시에 박물관 관람객의 행동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대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박물관 자체를 재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박물관 자체의 성격이나 혹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속에서 만들어지는

43) 荒山正彦, 1996. 「センス・地図・博物館—國家像の形成に關わる三つの制度—」 『江戸の思想』 4, 130-138.

44) ① 岩井宏美編, 1991. 『博物館づくりと地域おこし』 (ぎょうせい) 261. ② サントリー不易流行研究所, 1995. 『變貌するミュージアム』 (サントリー不易流行研究所) 83. ③ 角野幸博, 1996. 「まちづくりとミュージアム」 『季刊 TOMORROW』 11-1/2, 192-204. ④ 岩崎忠夫・渡辺貴介・森野美穂編, 1996. 『シリーズ 地域の活力と魅力 4 いこい—リゾート, テマパーク』 (ぎょうせい) 286.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박물관을 이론화시켜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까지 박물관 자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일본 국내의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극히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에 대한 전시나 문화재 보호 또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그 제도에 눈을 돌리면, 지리학이나 그 인접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이 분명해진다⁴⁵⁾. 이들의 연구속에는 최근의 박물관 연구에 대해 언급한 것도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들의 연구시점에서 새롭게 지역박물관론을 전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영어권을 중심으로 최근의 박물관 연구동향을 검토하여, 새로운 지역박물관론에 접근해 보려고 생각한다.

IV. 理論化된 博物館

- 英語圏을 중심으로 한 博物館 研究의 展望 -

1. 박물관 연구의 조류

1984년부터 1985년에 걸쳐 뉴욕에서 많은 부족예술(部族藝術)에 대한 전시가 행해졌다. 특히 뉴욕 현대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MOMA))에서의 전람회 「20세기 미술에 있어서 프리미티즘—「부족적」인 것과 「모던(modern)」적인 것과의 친연성(親緣性)」은 너무도 잘 알려진 것으로서, 그 목록집은 일본어로 번역⁴⁶⁾되어 출판될 정도였다. 이 전람회는 피카소를 비롯하여 근대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이나 사상속에 표현한 「부족사회」의 미술 혹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전시의 도처에서 근대 예술가들이 부족 예술에 대해 예술성을 「발견했던」 사실들을 서양문맥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뉴욕 현대 박물관에서의 전람회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많은 논평들이 행해졌지만, 클리포드(Clifford)의 「The predicament of culture」(『문화의 궁지』)⁴⁷⁾라는 저서는 민족지의 재

45) 예를 들면 ① 福田珠己, 1996. 「赤瓦は何を語るか—沖繩縣八重山諸島竹富島における町並み保全運動—」 『地理學評論』 69A, 727-743. ② 小林 茂, 1996. 「博物館とイデオロギー—〈ネパール館〉から九州國立博物館を考える」 『Museum Kyushu』 53, 19-26. ③ 松田京子, 1996. 「パピリオン學術人類館—世紀轉換期における「他者」表象をめぐる知」 『日本學報』 15, 47-70. ④ 瀬川眞平, 1995. 「國民國家を見せる—「うつくしいインドネシアミニ公園」における圖案・立地・讀みの占有—」 『人文地理』 47, 215-236. ⑤ 關 雄二, 「異文化理解としての博物館—「文化」を語る裝置—」(藤卷正己・住原則也・關 雄二編, 1996. 『異文化を「知る」ための方法』(古今書院)), 226-242. ⑥ 八木康幸, 1994. 「ふるさとのお太鼓—長崎縣における郷土藝能の創出と地域文化のゆくえ—」 『人文地理』 46-6, 581-603 등이 있다.

46) ウィリアム・ルービン編(吉田憲司他監修), 1995. 『20世紀美術におけるプリミティビズム—「部族的」なるものと「モダン」なるものとの親緣性』(淡交社) 343+688+23.

47) Clifford, J. 1988. *The predicament of culture: twentieth century ethnography, literature, and art*, (Harvard University Press) 381.

검토나 이문화의 수집 및 전시라는 문제와도 깊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박물관 연구에서 인용되는 사례도 많다. 뉴욕의 현대 박물관의 전시를 논하는 것은 9장 뿐이지만, 본저서 전체를 통해 20세기의 민족지나 예술에 대한 서술도 보여지며,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그 내용은 전개된다. 즉, 누가 어떤 집단의 정체성(identity)과 확실성(authenticity)을 대변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와 경계는 어떠한 것인가, 민족학이나 여행, 근대의 민족간의 여러 관계와 조우해서 자신(자기)과 타인(타자)은 서로 어떻게 마주치고 또한 해결할 것인가, 진보와 상실 및 혁신에 대해 어떠한 언변으로서 현시점에서의 지역적인 반대운동의 한계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이들 여러 문제에 대한 서양의 비전과 실천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저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클리포드는 뉴욕 현대 박물관의 전시 특징을 「현대인의 기호에 호소하는 것」, 「서양의 이미지 속에서 재구성된 것」, 「타자성(他者性)의 유용이 보이고」, 「보편적이며 초역사적인 인류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 「친연성만을 강조하여 차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전시」라고 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표현은 세계를 수집하려고 하는 서양인의 만족을 모르는 욕망과 권력의 결과이며, 피카소 시대에 「발견된」 미(美)의 표현이라 하고 있다. 부족예술을 「문화적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의 특질로서, 보편성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나 미를 둘러싼 시스템 문제는 지금까지 10여년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⁴⁸⁾. 클리포드 자신도 같은 책 10장에서 문화·예술을 수집하는 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소유욕에 의존하는 서양의 콜렉션은 어떤 배경에서 사물을 분리함으로써, 추상적인 전체를 대표시키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세계의 이치에 맞는 표현이라는 환상이 생기고 때로는 신격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도 콜렉션 또는 문화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극히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는 인식은 클리포드의 저서나 혹은 인류학 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박물관 연구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박물관에 관한 심포지움이나 회의는 각지에서 개최되었고 저서도 줄지어 출판되고 있다.

미국의 스미스소니안(Smithsonian)에서는 록펠러 재단을 스폰서로 하여 「표상의 시학과 정치학」(1988년) 및 「박물관과 커뮤니티」(1990년)라는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의 내용은 모두가 논점으로 정리되어 있다. 前者⁴⁹⁾의 경우는 사회적 구성속에서 지적되는 미(美) 혹은 가치라는 점에 초점이 놓여져 있으며 문화와 표상, 박물관과 국가 아이덴티티, 박물관에서의 마이놀리티 문화의 상황, 그리고 어떤 입장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라는 점을 특히 문

48) 일본의 사례로서는 金谷美和, 1996. 「앞글」(주 15) 외에도 佐藤道信, 1996. 『<日本美術>誕生—近代日本の「ことば」と戦略』(講談社) 244에서도 동일한 관심이 나타난다.

49) Karp, I. & Lavine, S. D. eds., 1991.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468.

제시한 박물관의 실천 관련 논고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들과 타자가 서로 대치하는 중간 위치의 박물관이라는 현장을 주시한 것이다. 前者가 표상적인 레벨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해, 後者⁵⁰⁾는 사회에서의 박물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표현은 수동적이고 전체적인 존재인 관람객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커뮤니티와의 관계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스미스소니안에서 발행된 두 개의 논집은 최근 박물관 연구의 조류를 잘 나타내고 있다. 前者에서는 문화의 표상으로서 박물관 전시라는 관심을 공유하는 것으로 카플렌(Flora E. S. Kaplan)편의 “Museums and making of “ourselves””(『박물관과 「우리들」의 생성』 51))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을 시설로서 취급하여 박물관 자체가 지니는 사명, 논리, 역할, 의무가 제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하에서 국민문화가 창조되기는 과정을 해명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접근은 박물관 연구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카플렌이 서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박물관의 연구 시점은 종래의 물질문화에서 박물관 그 자체나 전시라는 행위 자체로 옮겨간 것이다.

실제로, 럼레이(Robert Lumley)가 “The museum time machine”(『박물관 타임머신』)⁵²⁾에서 사회를 은유하여 각각의 사회가 스스로의 역사와 이문화와 자문화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박물관에 접근한 것은 1988년의 일이었고, 인류학자인 스톡킹(George W. Stocking, Jr.)⁵³⁾이 이문화를 전시하는 것을 논한 것도 1985년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클리포드가 논한 내용중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민족지의 재검토와 관련성이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세계의 박물관이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하는 박물관의 주변적 상황변화와도 깊게 관계되는 것이다. 그 만큼 박물관 자체가 변화함과 동시에 박물관에 대한 사람들과 사회의 요망도 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을 향한 기대의 변화는 박물관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된다. 앞서 진술한 스미스소니안에서 개최된 회의의 「박물관과 커뮤니티」가 바로 그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이 놓여진 현대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후퍼 그린힐(Eilean Hooper-Greenhill)⁵⁴⁾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박물관의 방문객은 일반대중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나 아이덴티티를 지닌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물관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중요시함과

50) Karp, I., Kreamer, C. M. & Lavine, S. D.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614.

51) Kaplan, F. E. S. ed., 1994. *Museum and making of “ourselves”: the role of objects in national identity*(Leicester University Press) 430.

52) Lumley, R. ed., 1988. *The museum time-machine*(Routledge) 241.

53) Stocking, Jr., G. W. ed., 1994. *Objects and others: essay o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430.

54) Hooper-Greenhill, E. 1995. *Museum, media, message*(Routledge) 299.

동시에, 방문객이 안내외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있는지⁵⁵⁾ 상세히 관찰하여 분석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은 지식이 축적되어 전시되는 장인 동시에, 그러한 지식들이 교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⁵⁶⁾.

물건 자체나 혹은 물건에 붙어있는 작은 라벨 이외의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 중립적 존재로서의 과거의 박물관상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박물관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하나 하나의 행위나 사물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2. 근대 박물관의 탄생과 그 시대

근대 박물관 연구의 기저에는 박물관사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보인다. 엠즈(Michael M. Ames)⁵⁷⁾나 베네트(Tony Bennett)⁵⁸⁾의 저서를 비롯한 많은 박물관 관련 저서에는 근대의 박물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베네트의 박물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박물관에 대한 현실적 측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베네트를 비롯한 근대의 박물관 연구에서 공통적인 사고는 박물관, 특히 근대 이후의 박물관을 정치학적 문제로서 검토하려 한 점에 있다. 즉, 박물관에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것이 가치를 더욱 더 높혀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의 가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은 박물관학적인 시야에 지배되고 있었다. 즉, 진귀한 물품의 장식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배열에는 전혀 질서가 없다는 것이다. 사물의 특이성에만 주목하여 놀라움과 즐거움의 산물로서 전시된 일종의 장식장은 소유자인 권력자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이후, 동시대에 탄생한 백화점이나 박람회든 물론 박물관에도 차별화, 특수화 및 계층화의 원리가 작용하여 혼돈(카오스)의 세계에서 질서있는 세계로 이행되어 간다. 전시에 있어서도 과학적 합리성이 요구되고, 일반대중에게도 자기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박물관은 정확성과 가치의 지주로서 박물관의 역할, 즉 대중교화의 장치로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은 한정된 사람들 이외에는 배제하거나 제한하던 박물관이 일반대중에게 열리게 된다. 일반적인 입장에 따르자면, 박물관의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이다⁵⁹⁾. 그것도 공개의 목적이 개

55) 박물관 관람객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번역서가 있다. ジョン・H・フォーク & 린・D・디어킹(高橋順一譯) 1996. 『博物館體驗 學藝員のための視點』(雄山閣) 215.

56) Kavanagh, G. 1991. *Museum Languages: objects and texts*(Leicester University Press) 180.

57) Ames, M. M. 1992. *Cannibal tours and grass boxes: the anthropology of museums*(UBC Press) 212.

58) Bennett, T.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Routledge) 278.

59) ① Bennett, T. 1995. *op. cit.*(주 58) 102. 접근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는 하

몽인 이상 박물관은 중산계층의 행동양식을 모방함에 따라 대중을 세련화하는 역할을 띠고 있었다. 박물관이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방되어야 할 엘리트와 교화되어야 할 대중, 다시 말해 지식의 생산자인 엘리트와 지식의 소비자인 대중을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몽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사명은 그 후에도 오래동안 계속된다. 특히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박물관의 공공성을 문제시한 단계, 즉 사람들을 개몽하고 교화시키는 기관으로서의 능동적인 학습을 위해서나 혹은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이행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박물관에 관한 논의도 점차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3. 타자(他者)의 표상

박물관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타자표상(他者表象)으로서의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엠즈는 “Cannibal tours and grass boxes”(『식인종 관광과 유리 상자』⁶⁰⁾)라는 저서에서 박물관이 타자를 스스로의 것으로 표현해 온 점에 대해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물관은 이민족의 자료를 자기자신의 연구나 설명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사물화하고 있다」고 하고, 아울러 「박물관은 표현된 이문화를 유리 전시장 속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물관과 대학의 양쪽에서 인류학 연구를 행해온 엠즈는 스스로가 박물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여태까지 희생되어 온 문화복합의 현장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타자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각시대의 박물관 전시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론하고 있다.

앞 절의 박물관사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애당초 이문화나 타자에 관련되는 사물은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장식장에 놓여져 있었다. 전시하는 배열순서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사물 그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만이 가치기준이 되었던 시대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의 전시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도 지배적이었다. 다음 단계는 19세기 후반 이후로 자연사(Natural history)의 일환으로 이문화를 전시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진화론에 강한 영향을 받은 전시인 것이다. 이문화에 관한 사물은 원시에서 고대로 계속되는 선상에서 진화하는 순서에 의해 표현된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가 된 것은 형태의

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몽해야 할 존재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남성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Glaser, J. R. & Zenetou, A. eds., 1994. *Gender perspectives: essays on women in museums*(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61. 박물관에서 젠더의 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③ Porter, G. Seeing through solidity: a feminist perspective on museums(Macdonald, S. & Fyfe, G. eds., 1996. *Teorizing museums: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Blackwell)) 105-126.

60) Ames, M. M. 1992. *op. cit.*(주 57).

동일성, 변화의 단계 혹은 지리적 기원이었다. 현대에도 아직 자연사를 칭한 박물관이나 그 시대에 기원을 둔 국립박물관 등에서는 전술한 종류의 배열을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의 단계는 근대 인류학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전시이다. 이것은 프렌츠 보아즈 이후의 이문화 전시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필드(field)의 문화적 배경을 복원함으로써 토착적인 견해를 전시하려고 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인류학 조사에 바탕을 두고 발견된 「그들」 사회의 의미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타자를 사물화한다고 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취급할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나, 여기서의 필드의 문화적 배경이란 인류학자 쪽에 존재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들의 문화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주체가 아카데미즘이나 박물관측에 있다는 사실에는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이미 뉴욕 현대 미술관의 전시를 예로 설명한 것처럼, 심미적인 시각에 따른 전시이다. 사물을 문화적 배경에서 분리하여 미(美)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시형태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시점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보면 세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보다 넓은 지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하여 비교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사물의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점, 셋째로는 모든 것이 아웃사이드적 입장에서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공통점이야말로 타자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박물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타자표상으로서의 전시에 관한 문제에는 많은 연구자가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속학자인 커셴블렛-김블렛(Barbara Kirshenblatt-Gimblett)⁶¹⁾은 타자를 표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어떻게 정의되고 분절화, 분리, 운반된 민족(민속)자료가 탄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물 그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장소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은 자료를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물건이건 사람이건 간에 전시물은 모두가 학문분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아카데미즘 속에서 논한 커셴블렛-김블렛과는 대조적으로 웨이드(Edwin L. Wade)⁶²⁾는 부족미술의 시장을 문제삼고 있다. 클리포드가 제시한 「오센시티 생성의 메카니즘」⁶³⁾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박물관과 민족예술의 시장은 서로 손을 잡고, 이문화의 자료로서 혹은 상품으로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박물관 전시는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있는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⁶⁴⁾.

61) Kirshenblatt-Gimblett, B. Objects of ethnography(Karp, I. & Lavine, S. D. eds., 1991.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386-443.

62) Wade, Edwin L. The ethnic art market in the American Southwest, 1880-1980(Stocking, G. W. Jr. ed., 1985. *Objects and others: essay o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67-191.

63) Clifford, J. *op. cit.*(주 47) 222-226.

64) Bennett, T. 1995. *op. cit.*(주 58) 128-162, 및 Anderson, M. & Reeves, A. Contested identities: museums and the nation in Australia(Kaplan, F. E. S. ed., 1994. *Museums and the making of "ourselves": the role of objects in national identity*(Leicester University Press)) 79-124.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내 전시이면서도 근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상(像)을 이야기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항상, 대영제국과의 관계가 전시에 큰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자료수집은 영국에게 자연사 자료를 제공하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것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자연사 박물관으로서의 전시가 행해지게 되지만, 결국 그것은 영국의 분류 체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타자」의 것인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료는 항상 그 체계에서 최하부에 놓여져 왔다. 결국,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보존·전시해야만 할 독자적인 과거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자국의 전시이면서도 영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타자표상으로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타자표상으로서의 박물관 전시를 생각할 때에 피어스(Susan Pearce)가 편저한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박물관과 문화의 유용(流用)⁶⁵)에서 논의의 중심이었던 「문화의 유용」⁶⁶은 큰 의미를 던져 준다. 이 속에서 존슨(Nichola Johnson)⁶⁷은 19세기 말에 개최된 대영제국에서의 아프리카 전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기묘한 것으로서 아프리카를 견학하고 전시물을 즐기는 편이었으며, 같은 제국의 저변에 놓여진 것으로서 자기를 성찰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아프리카 문화가 대영제국에 의해 타자로서 표상되고 있었던 동시에, 관람자에 의해서도 의미의 유용이 행해진 것이다. 문화를 유용하거나 사물화하는 것은 비록 서양과 비서양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베어드와 헨더슨(Beard & John Henderson)⁶⁸은 옥스퍼드의 에쉬몰린 박물관(the Ashmolean Museum)의 참신한 고전예술에 대한 전시를 예로 하여, 여러 가지 단계의 유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것은 물건을 약탈해 가버렸다고 하는 유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의한 과거의 유용, 북에 의한 남(지중해 지역)의 유용, 우리들에 의한 그들의 유용, 나아가 박물관에 의한 관람자의 유용이라는 상황처럼, 광범위한 문화의 유용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은 타자를 삼켜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자체문화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셰퍼드(Brian Shepherd)⁶⁹는 유용이라는 관점에서 전시상에 어린이의 취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논의전개는 우리들의 기성개념을 뒤엎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유용의 예와는 달리, 타자를 유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타자성을 망각한 어른들에게 동일한 것으로서의 취급이 어린이나 어린시절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65) Pearce, S. eds., 1994.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The Athlone Press) 265.

66) 오오타(太田)가 이미 본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太田好信, 1992. 「文化の流用(Appropriation),あるいは發生の物語へむけて」『北海道東海大學紀要人文社會學系』5, 77-98.

67) Johnson, N. Briton, Boer and Black in Savage South(Pearce, S. ed., 1994.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The Athlone Press)) 174-197.

68) Beard, M. & Henderson, J. PLEASE DON'T TOUCH THE CEILING: the culture of appropriation (Pearce, S. ed., 1994.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The Athlone Press)) 5-42

69) Shepherd, B. 'Childhood's pattern: appropriation by generation(Pearce, S. ed., 1994.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The Athlone Press)) 65-83.

피어스의 편저에서 보면, 문화의 유용에 대한 사례는 너무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으며, 개개의 전람회를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문화의 유용이란 측면에서 논하는 타당성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유용의 해석이 박물관이라는 타자표상의 장을 재검토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임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자기의 표상 1 -커뮤니티와 박물관-

박물관에서의 타자표상이나 문화의 유용에 대해 검토하는 일은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의 오너쉽(ownership)을 엄하게 힐책하는 것과는 관련된다. 이것은 최근의 박물관 연구속에서도 한창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물질문화로서의 문화재의 소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미나 표상의 단계에서 누가 조절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문화로서 유용되고 전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나 표현하는 권리 그 자체를 되찾으려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예는 1980년대 이후 캐나다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⁷⁰⁾. 그 가운데서도 켈거리의 글렌보 박물관(the Glenbow)의 사건⁷¹⁾은 동계 올림픽 개최와도 관련되는 유명한 것이다. 1988년 글렌보 박물관의 전시인 「정령(精靈)은 노래한다」가 원주민에 의해 보이콧 운동으로 휩싸였다. 당초에는 켈거리 올림픽 대회장에 포함된 원주민인 루비콘 크리(the Lubicon Cree)가 권리를 주장하여,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그 후에 전시의 보이콧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1980년대 캐나다의 원주민 정책이 깊게 관여되고 있었다. 엠즈⁷²⁾에 의하면, 1980년대의 원주민 정책은 민족의 토지를 탈환하는 운동에 직면하고 있었다. 민족유산이 상품으로서 취급되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이미지를 조절함으로써 자기표상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 글렌보 박물관 사건은 지역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후에 박물관과 원주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북미에서의 일이지만, 미국의 활동은 캐나다에서의 그것보다도 다소 빠른 시기부터 전개되어 왔다. 1970년대에는 알바니의 뉴욕 주립박물관(the New York State Museum)과 오논다가 인디언(the Onondaga Indian) 사이에서 박물관이 소장하는 패각옥(貝殼玉) 벨트의

70) Riegel, H. Into the heart of irony: ethnographic exhibitions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Macdonald, S. & Fyfe, G. eds., 1996. *Theorizing museums: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Blackwell)) 83-104.

71) 關 雄二, 1996. 「앞글」(주 45) 중 ⑤번 외에 ① Carter, J. Museums and indigenous peoples in Canada(Pearce, S. ed., 1997.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The Athlone Press)) 213-226. ② Clifford, J.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188-219가 있다.

72) Ames, M. M. 1992. *op. cit.*(주 57) 80.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⁷³). 1970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불법 문화재의 이동이 금지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물건의 소유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 오너십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이었다.

카프 등에 의한 편저인 “Museum and communities“(『박물관과 커뮤니티』)⁷⁴에 있어서도 마이놀리티에 의해 행해진 자문화 탈환 및 재평가에 관련된 실천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다. 아프리카·아메리칸 박물관에서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실천사례를 소개한 게이더(Edmund Barry Gaither)⁷⁵는 종래 박물관의 중심적 위치를 점해왔던, 즉 사물보다도 오히려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현재상황의 활동을 제기하고 있다. 첸(John Kuo Wei Tchen)⁷⁶은 뉴욕 차이나타운의 역사 박물관(the Chinatown Museum)에서 외부인까지도 관련시킨 실천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계 뉴욕인 뿐만 아니라, 비중국계 뉴욕인이나 여행자 등 차이나타운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대화적 접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아크-첸 인디언(the Ak-Chin Indian)의 커뮤니티에서 생태박물관(Ecomuseum)⁷⁷의 전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의 박물관과 미술관, 혹은 어린이 박물관의 전개 등 커뮤니티 내의 생활에 중점을 둔 실천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이나 커뮤니티의 권리라는 위치속에 실천되는 박물관 활동 가운데 근린박물관(neighborhood museum)의 존재를 간과할 수는 없다. 1960년대부터 미국사회에 뿌리

73) Stocking, Jr., G. W. ed., 1994. *op. cit.*(주 53) 11.

74) Karp, I., Kreamer, C. M. & Lavine, S. D. eds., 1992. *op. cit.*(주 50).

75) Gaither, E. B. “Hey! That’s Mine”: thoughts on pluralism and American museum(Karp, I., Kreamer, C. M. & Lavine, S. D.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56-64.

76) Tchen, J. K. W. Creating a dialogic museum: the Chinatown History Museum experiment(Karp, I., Kreamer, C. M. & Lavine, S. D.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85-326.

77) ① Karp, I., Kreamer, C. M. & Lavine, S. D. eds., 1992. *op. cit.*(주 50)에서 해당문헌은 Fuller, N. J. The museum as a vehicle for community empowerment: the Ak-Chin Indian community ecomuseum project(Karp, I., Kreamer, C. M. & Lavine, S. D.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the politics of public culture*(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327-365이다. 에코뮤지엄(ecomuseum, écomusée)은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탄생한 것으로 지역의 출신·발전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야외 박물관의 일종이다. 생태박물관(에코뮤지엄)에 관한 실천적인 보고나 논의는 활발하지만, 여기서는 줄고 및 일본에서 발행된 저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헌을 제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② 雑誌『Museum』37-4(1985). 생태박물관에 대한 특집호. 창시자인 리비에르(Geogres Henri Rivière)에 의한 定義도 게재되어 있다. ③ 藤原道郎·鎌田磨人·福田珠己, 1996. 「フランスのエコミュージアム —ロゼール山・エコミュージアムとグランドランド・エコミュージアムの事例を中心として—」『徳島縣立博物館研究報告』6, 1-38. ④ 福田珠己, 「地域文化再生の場, エコミュージアム —新しい「博物館」づくりをめぐる—」(浮田典良編, 1997. 『地域文化を生きる』(大明堂)) 145-164. ⑤ 丹青總合研究所, 1993. 『Ecomuseum』(丹青總合研究所) 138. ⑥ 新井重三, 1995. 『實踐 エコミュージアム入門—21世紀のまちおこし』(牧野出版) 197. ⑦ 日本エコミュージアム研究會編, 1997. 『エコミュージアム・理念と活動—世界と日本の最新事例集』(牧野出版) 301.

를 내린 박물관으로, 사회를 이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박물관의 실천을 취급하는 부분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아나코스티아 근린박물관(the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등은 유명하다⁷⁸⁾.

이상에서 개관한 것처럼, 자기표상으로서의 박물관의 존재형태는 다문화 사회의 권리의 주장, 자기 아이덴티티의 주장 등 현대적인 과제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불평등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서 박물관과 자문화의 보유·보존 및 계승을 목표로 삼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 활동에 있어서 박물관의 공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접근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표상의 권리도 포함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강력하게 재편성해 가는 시도는 현실생활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가운데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 형성에서 박물관이라는 시설이 담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문제시 삼은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⁷⁹⁾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혹은 국가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중의 하나이다. 카프란의 편지인 “Museum and the making of “ourselves””(『박물관과 「우리들」의 생성』)⁸⁰⁾에 수록된 14개의 사례연구는 박물관의 토착문화의 보존을 통해 새로운 국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국가통일을 촉진시키려고 한 나이지리아의 사례나, 또는 블랙 컬처(Black Culture)의 전시를 통해 새로운 카리비언으로서의 문화를 창출하려고 한 카리브 지역의 사례 등, 모두가 정치적인 문제를 정면에서 맞서고 있는 논고들이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보면, 국가 아이덴티티 형성속에서도 정치적인 상징으로 기능해 온 박물관을 생각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박물관을 중립적인 다시 말해 물건들이 침묵하고 있는 공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박물관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국민국가와 자기표상이라는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다⁸¹⁾.

78) Kinard, J. R. 1985. The neighbourhood museum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Museum* 37/4: 217-223. 근린박물관은 미국에서 발전한 박물관의 한 형태이다. 생태박물관(에코뮤지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슬산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웨백 선언」에는 새로운 박물관학으로 언급되고 있다.

79) 베네딕트·안더슨(白石 隆·白石さや譯), 1997. 『얏책』(주 42).

80) Kaplan, F. E. S. ed., 1994. *op. cit.*(주 51).

81) 국민국가와 자기표상에 대해서는 大城直樹 「學會展望(1996年 1月~12月) 民族·文化」, 『人文地理』 49, 1997, 253-258에 상세히 리뷰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5. 자기의 표상 2 -기억된 과거-

국가 아이덴티티의 형성속에서 혹은 마이놀리티의 권리속에서 자문화가 의식적으로 창조·통합되고, 다시 되찾으며 유용되어 왔다⁸²⁾.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러 연구에서 상세히 거론되고 있지만, 자기표상으로서의 박물관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한가지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자기표상의 시도속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문화나 과거를 보존·재생·전시하려고 해 왔는지에 대한 점이다. 특히, 그 시점까지 자국이나 자문화를 알리는 경우에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과거나 역사 혹은 생활을 조명해 봄으로써,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를 표상하려고 하고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⁸³⁾.

과거의 기록이나 과거의 표현에 대해서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의 보전과 연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월쉬(Kevin Walsh)⁸⁴⁾는 근대의 경험과 과거를 보존하는 점에 대한 소망에 대해 박물관이나 유적보전을 염두하여 논하고 있다. 월쉬에 의하면, 근대의 경험이란 사람들을 과거나 뿌리만이 아니라, 생활에 영향을 준 경제·정치·문화적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리적인 격차가 박물관의 출현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전시란 물건 그 자체가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니다. 생활의 많은 과정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대해 과거나 진보의 표상을 보이고,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사람들은 격리된 과정속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함으로써 장소의 감각⁸⁵⁾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박물관이나 유적은 절단된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를 되찾고, 장소의 감각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띠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과 유적, 사적의 보전이라는 과거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전의 움직임은 유산의 「경험」을 한층 촉진시킨 것으로서, 과거를 레크레이션 관련의 시장속에 자리매김하려는 것과는 관련된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실천적 사례는 노동자 계급의 일상생활을 표현한 박물관의 형태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종류의 박물관은 민족생활 박물관

82) 太田好信, 1993. 「앞글」(주 16).

83) 어리(Urry)도 어떻게 사회가 과거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논문에서는 과거를 객체화한 시간질서 속에서 전시하는 일에 어떻게 박물관이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트러블링 켈러나 탈전통화의 논의를 통해 시사하고 있다. Urry, J. How societies remember the past(Macdonald, S. & Fyfe, G. eds., 1996. *Theorizing museums: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Blackwell)) 45-65.

84) Walsh, K. 1992. *The representation of the past: museums and heritage in the post-modern world*(Routledge) 204.

85) 고고학자 월쉬가 말하는 장소의 감각(sense of place)은 지리학에서의 개념과는 다르다. 즉, 공간(유적, 박물관 등)과 시간(역사)을 포함시킨 감각이라는 의미이다.

(Folklife Museum) 혹은 야외박물관의 흐름속에 자리매김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현대사회에 있어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⁸⁶⁾. 재현된 과거는 결코 나쁜 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추악한 과거는 미화되고 보다 먼 과거로 추방됨으로써, 박물관 관람자는 안심해서 스스로의 과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는 자기표상인 동시에 확실하게 이국이나 이문화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⁷⁾.

보존되고 재생된 과거가 사람들에게 기분좋은 것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비록 윌쉬만이 아니라, 무어(Kevin Moore)⁸⁸⁾, 웨스트(Bob West)⁸⁹⁾ 및 베네트 등⁹⁰⁾도 마찬가지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과거의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특히 무어는 노동사 연구의 시점에 입각하여, 산업유산이나 과거의 노동 및 산업전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전시는 탈정치화된 표현이 되며, 과거의 노동쟁의에서 권리획득을 위하여 투쟁한 노동자, 특히 여성의 모습은 거의 등한시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거기에는 간혹 과거의 생활이나 생활자 전체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을 회고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웨스트는 영국의 야외박물관, 아이론브릿지 계곡박물관(the Ironbridge Gorge Museum)을 평가하여 과거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경향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적 유산이 하이컬처(High Culture), 즉 남성적 평가로 특징지어지는데 대해 지역적 유산이나 그에 관련되는 새로운 박물관은 과거를 혁신적인 방법에 의해 표현하고 대중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점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라고 하는 상품을 배경으로, 단순히 판매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하고 있다. 한편, 베네트는 1960년 영국의 생활사 전시의 선두주자로서 공개된 비미쉬(Beamish)의 북잉글랜드 야외박물관(North of England Open Air Museum)을 예로 하여 생활사 전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베네트는 근대박물관사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지배계급의 권위를 물질화하는 점에 중점을 둔 박물관에 있어서도 비엘리트의 생활습관을 취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평가하는 한편, 그러한 하위의 사회계층문화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윌쉬 등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복잡함 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요소로서의 과거의 표현이며, 사람들의 묘사가 감상적이기 쉬운 경향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베네트는 이러한 표현을 「사회관계의 소형화」⁹¹⁾로서 지적하고 있다.

86) Moor, K. Labour history in museums: development and direction(Pearce, S. ed., 1994. *Museums and the appropriation of culture*(The Athlone Press)) 142-173.

87) Lowenthal, D. 1995.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Cambridge University Press) 489.

88) Moor, K. 1994. *op. cit.*(주 86).

89) West, B.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past: a critical view of the Ironbridge George Museum(Lumley, R. ed., 1988. *The museum time Machine*(Routledge)) 36-62.

90) Bennett, T. Museums and 'the people'(Lumley, R. ed., 1988. *The museum time machine* (Routledge)) 63-85.

기분 좋은 과거를 재현하여, 자기표상을 시도한 것은 영국의 생활전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대 이후 야외박물관과 역사(소재) 공원이 급증하고 있다⁹²⁾. 이들 모두가 건축물을 이축하거나 재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데에 배려한 시설이다. 유달리 1970년대에는 생활역사(Living History)의 운동이 활발하여 대중의 생활사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점이 크게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생활역사 운동이 강력한 추진자였던 앤더슨(Jay Anderson)⁹³⁾에 의하면, 생활사의 복원이란 다른 시대의 생활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며, 그 복원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야외박물관에서 과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험고고학의 연구도구로서, 그리고 역사의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는 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사의 복원에 있어서는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등의 성과를 토대로 철저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진실성을 높이려는 점이 시도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재현인 이상 거기에서의 경험은 가능한 한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법들이 모색된다. 예를 들면, 과거의 복장차림의 스태프가 재현된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 혹은 도입에 있어서 영상에 의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일, 나아가 참가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오락적 요소 중에 사람들은 과거의 생활을 모의적으로 체험하며 스스로의 역사를 보다 밀접한 관계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장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해설에는 1인칭에 의한 설명이 많이 사용된다. 과거의 복장차림의 스태프가 생활의 재현을 통해서 박물관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오리엔테이션의 영상전시에 있어서도 가끔 1인칭을 이용한 이야기가 활용된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정치적인 역사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과거로서 공감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⁹⁴⁾.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잃은 사람들이 스태프나 영상속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과거」로 새롭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박물관 관람자들은 박물관이라는 다이나믹한 텍스트의 저자가 그 누구인지도 종종 간과해 버리기 쉬운 것이다. 이런 종류의

91) Bennett, T. 1996. *op. cit.*(주 58) 128-162.

92) 북미의 역사(소재) 공원이나 야외박물관에 대해서는 ① 杉本尙次, 1991. 『北美傳統文化の實像—民家を中心とした生活形態の研究—』(PHP) 235. ② 杉本尙次, 1994. 『北美における傳統的建築物の保存・再生・活用—野外博物館を中心として—』(關西學院大學人文學會編, 1994 『關西學院大學文學部60周年記念論文集』(關西學院大學人文學會)) 149-169. ③ Anderson, J. 1984. *Time machine: the world of living history*(AASLH) 217. ④ Anderson, J. ed., 1991. *A living history reader*(AASLH) 231. ⑤ Wallace, M. 1981. Visiting the past: history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Radical History Review* 25: 63-96 등이 있다.

93) Anderson, J. 1984. *op. cit.*(주 92-③)과 Anderson, J. ed., 1991. *op. cit.*(주 92-④).

94) Gable, E. Maintaining boundaries, or 'mainstreaming' black history in a white museum (Macdonald, S. & Fyfe, G. eds., 1996. *Theorizing museums: representing identity and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Blackwell)) 177-202.

박물관이 지니는 오락성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즉 기분좋은 「우리들의 과거」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과거는 어떠한 시점과 입장에서 탄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거를 재현하고 자기를 표상하는 박물관에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V. 새로운 地域博物館論을 指向하여

최근 30년 정도 사이에,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박물관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 변화는 사람들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사고를 바꾸게 하였고, 동시에 박물관에 관한 연구에도 새로운 시점을 가져오게 하였다. 박물관은 지금 전시나 운영을 통해서 지식과 권력, 아이덴티티와 차이, 영속성과 일시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⁹⁵⁾.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참가가 행해지는 박물관 연구의 미개척 분야는 아직도 넓다. 본고에서 언급했던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지역박물관에서 중심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의 지역」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시해 가느냐, 또한 지역속에서 어떻게 박물관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3장에서 논한 것처럼, 표현해야 할 영역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여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로 수렴되는 경향에 있지만, 본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박물관은 결코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박물관을 건설하는 일이 부나 권위를 상징하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표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박물관 전시에 있어서도 그의 관련된 메시지가 농도질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박물관은 간혹 문화의 유용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관에서 자기표상으로서 지역을 표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에 응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표리부동한 타자표상과 자기표상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박물관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내의 박물관 실태를 재고하는 과정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혹은 전시하는 지역이란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서술한 것처럼, 지역박물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⁹⁶⁾.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지역박물관의 기반이 되는 행정지역이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역사나 문화의 전시에 맞지 않은 기초단위라고 못박아 버리는 것은 피상적인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박물관의 건설과 활동을 통해서 요청되는 로컬 아이덴티티의 재생과 창조의 중간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것은 박물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넘어 재편되는 지역문화, 혹은 지

95) Macdonald, S. & Fyfe, G. eds., 1996. *op. cit.*(주 6) 2.

96) 笹原亮二, 1992. 「앞글」(주 40).

역 그 자체에 대한 검토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확산경향에 있는 일본의 지역 박물관론에도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⁹⁷⁾.

한편, 최근 급속히 발전된 온 박물관연구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부터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미디어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점 역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박물관연구가 박물관을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서 자리매김하거나 박물관에서 생산되고 수용된 메시지를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에 있었다⁹⁸⁾. 앞으로는 이러한 일원적인 취급방법을 초월하여, 걸출하고 다이나믹하게 운영되는 박물관을 어떻게 고려해 갈 것인가에 대해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⁹⁹⁾.

클리포드¹⁰⁰⁾는 박물관을 적절히 컨택트 존(Contact Zone)이라 말하고 있지만, 다양한 집단과 인간 그리고 사상이 만나서 서로 관계하고, 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박물관은 지역문화나 지역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을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서 박물관을 다시 보고 통찰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중의 하나이다. 적어도 지역박물관은 자기상(自己像)을 창출하고 더불어 창출시키는 운동, 그리고 그에 관련되는 다양한 영역을 검토대상의 자료로 제공해 줄 것이다.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재편되고 창조되는 지역, 지역문화 그리고 로칼 아이덴티티란 어떠한 것인가. 지역박물관은 현대적 과제에 몰두하는 지리학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97) 현재도 많은 박물관에서 새로운 지역박물관에 대한 존재형태가 모색되고 있다. 한가지 사례로서, 시가현립 비파호 박물관(滋賀縣立琵琶湖博物館)의 활동을 다음의 전시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滋賀縣立琵琶湖博物館編, 1997. 『博物館ができるまで』(滋賀縣立琵琶湖博物館) 86.

98) Macdonald, S. & Fyfe, G. eds., 1996. *op. cit.*(주 6) 1-18. 본고에서 논했던 국가 아이덴티티의 창출과 박물관에 관한 많은 논의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접근일 것이다.

99) 전문에서 지적한 맥도날드는 박물관의 현장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Macdonald, S. The museum as mirror: ethnographic reflections(James, A., Hockey, J. & Dawson, A. eds., 1997. *After writing culture: epistemology and praxis in contemporary anthropology*(Routledge)) 161-176.

100) Clifford, J. 1997. *op. cit.*(주 71-②).